

평화재단 제45차 전문가포럼

The Peace Foundation 45th Forum

신 양극체제와 한국의 전략 선택

- 일시 2011. 4. 19 (화) 오후 2:00-5:00
- 장소 평화재단 강당
- 주최 평화재단평화연구원(02-6925-0581)

● 프로그램 ●

14:00	개 회	
14:05	여는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사 회	안성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4:15	발 표	신 양극체제와 한국의 전략 선택 조명진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대외국 동아시아 안보전문역
14:45	전체토론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구갑우 북한대학원 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15:15	질의응답	
15:35	휴 식	
15:50	전체토론	
16:50	닫는말	
17:00	폐 회	

● 모시는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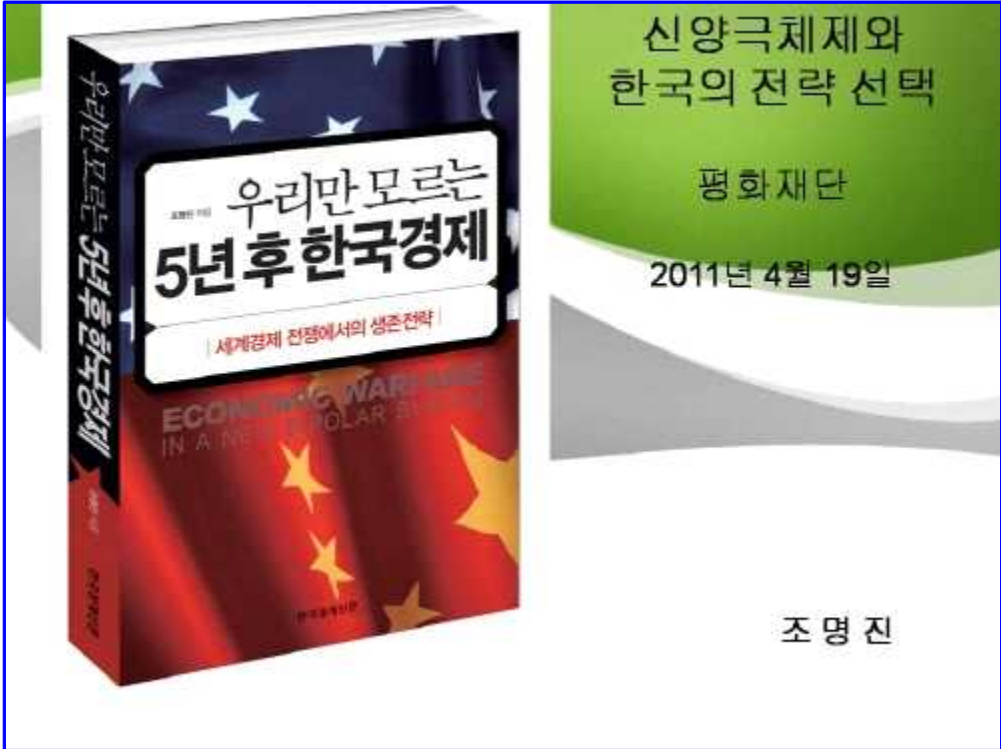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이사회 대외국 안보전문역으로 계시는 조명진 박사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 움직임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질서를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융위기라는 변수로 인해, 세계 경제 권력이 친서양세계와 상하이협력기구(SCO)로 나뉘어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는 '신 양극체제' 라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대처가 가능한지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5차 전문가포럼
신 양극체제와 한국의 전략 선택

펴낸날 2011년 4월 19일 | 펴낸곳 (재)평화재단 | (우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93-7 서초이오빌 2층
전 화 02-6925-0581 | 전송 02-581-4077 | pjtyuzi@peacefoundation.or.kr | www.peacefoundation.or.kr



신 양극체제(New Bipolar System)-1

바르샤바조약기구
소말-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존재
 무의미, 소련과 바르샤바동맹국 군사적 위협 없어졌지만 유럽 추동 미군 감축상태로 잔류

NATO

나토는 적진 변경을 유럽 밖으로
 친 서방 또는 친미의 범세계적 집단안보체제, 일명 **파토(PATO, Pro-American Treaty Organization)** 확대일로

미국 유럽 밖의 친미 국가 일본, 호주, 한국을 나토와 협력 관계 통해 범세계적 집단안보체제의 구축 도모

신 양극체제(New Bipolar System)-2

PATO와 SCO 대립
현상-21세기
국제질서 새로운
패러다임
'신 양극체제(New
Bi-Polar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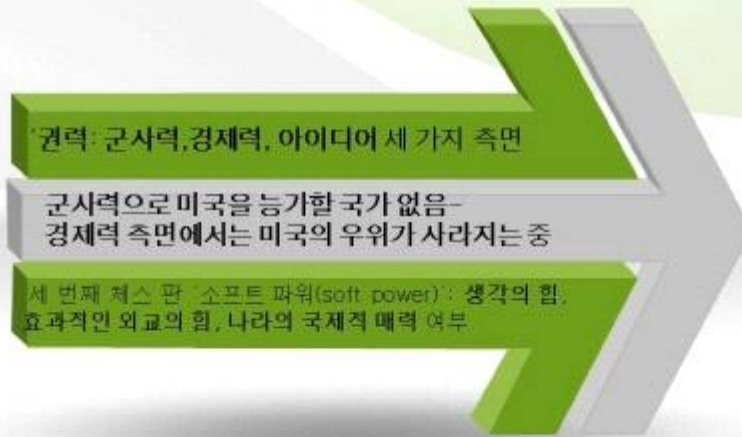


- ✓상해협력기구(SCO)
 - ✓회원국, 이란, 시리아 같은 아랍의 반 서방 국가들
 - ✓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같은 남미 반미 성향 국가들.
 - ✓아프리카에 중국 영향권 하-수단, 앙골라, 잠비아, 남아공
- PATO**견과 대립

For PowerPoint 97-2010
Page - 3

네비게이팅 파워(Navigating Powe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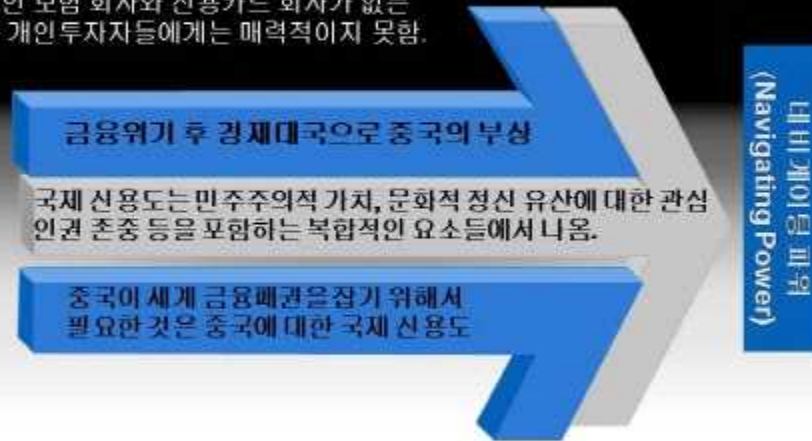
하버드대 조셉 나이 '국제무대에서 권력은 3중 체스 판과 같다



Page - 4

네비게이팅 파워(Navigating Power)- 2

제조업이 활력 띄고, 증시 운영은 활발하지만
세계적인 보험 회사와 신용카드 회사가 없는
중국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함.



국제 신용도는 외화 보유고나 고급 제품생산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출처: 김근우, 『글로벌경제의 흐름』

네비게이팅 파워(Navigating Power)- 3

네비 파워의 핵심 '균형(balance)'
-국민에게 현 위치를 알려 주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부의
총체적 역량-네비 파워. 국제정치-
네비 파워'

구체적 정의:
네비 파워 효과적 외교 능력, '존중할
만한'(respectful) 생각의 힘-



'설득력(assertiveness)',
금융과 경제에서 네비 파워
'국제 신용도'

소프트 파워, +'지속성
있는'(sustainable) 경제력, '명분
있는'(justifiable) 해외 군사력 투입
능력(military projection power
beyond border) 하드 파워 합친
개념

Page -6

금융 위기 분석과 진단 1

경제는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필요로 한다. 지난 20년간 미국은 그 균형을 잃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도 함께 균형을 잃었다. - 조셉 스티글리츠

Economies need a balance between the role of the markets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last twenty years, America lost that balance, and it pushed its unbalanced perspective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Joseph Stiglitz, <Freefall: Free Markets and the Sinking of the Global Economy> 2010

Page - 7

금융 위기 분석과 진단-2

기업이 파산이유: 이윤을 내지 못하기 때문, 은행이 문 닫는 이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

부실 기업은 자유 시장의 원리에 의해 망하는데, 운 좋은 부실 은행들은 감당 못할 손실 내고도 구제 대상

구제 논리: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한 납세자인 국민이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공적 자금)으로 은행을 구제

직접적 피해는 대출이치 상환 능력이 없는 주택소유자. 압류(foreclosure) 대상

이들도 납세자.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의 구제 대상이지만 이자를 못 갚는 주택소유자는 구제 대상 밖.

미국의 손실 타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 '금융 국제화의 단점(Downside of Financial Internationalization)'

Page - 8

금융위기 책임소재-1

앨런 그린스펀-금융위기 한 세기에 한번 일어날 '금융 쓰나미',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허점이 있다

There is a flaw in free-market ideology that he followed

그린스펀은 자신의 책임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본인 책임 불인정
-미국이 신봉해온 자유시장경제 체제 불완전성만 지적



1999년 2월 15일 타임 표지
그린스펀과, 재무장관 래리
성머스 "세계를 구할
위원회(Committee to Save
the World)"

10뒤 2008년 세계
경제를 망친 인물들로
비난 대상



재무장관 로버트 두빈

Page - 9

금융위기 책임소재-2

2008년 10월 뉴욕 타임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미국 주택시장 붕괴 원인 - 느슨한 정부 규제, 비뚤어진 파생금융상품,
과다한 부채, 지나친 탐욕, 금융가, 대출자,

주택개발업자, 정치인,
관료다". 목잡하게 얽힌
대출환경과 대출 이권
노린 이해당사자들
합작품

2010년 5월 뮌헨버그
통신 미연방 검찰은
AIG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을 것.

AIG 회장 조셉 카사노
보험회사 붕괴 연관되어
미 법무부 증거물중본의
AIG의 임원들이 모기지
채권의 부실 위험을 담
비용인

금융위기 핵심 수사 대상 4곳(패니메,
프레디맥, 리먼 브라더스, AIG)
4곳을 포함한 금융위기 자초한 해당
금융기관들과 헤지펀드간에 파행적 자금
이동이나 압박 증거와 내부자 거래에 최고
경영진들이 관여했다는 사실 밝혀낼 지
미지수

국채신용부도스왑(CDS)
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잘못
알려졌는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발표

Page - 10

주목할만한 수치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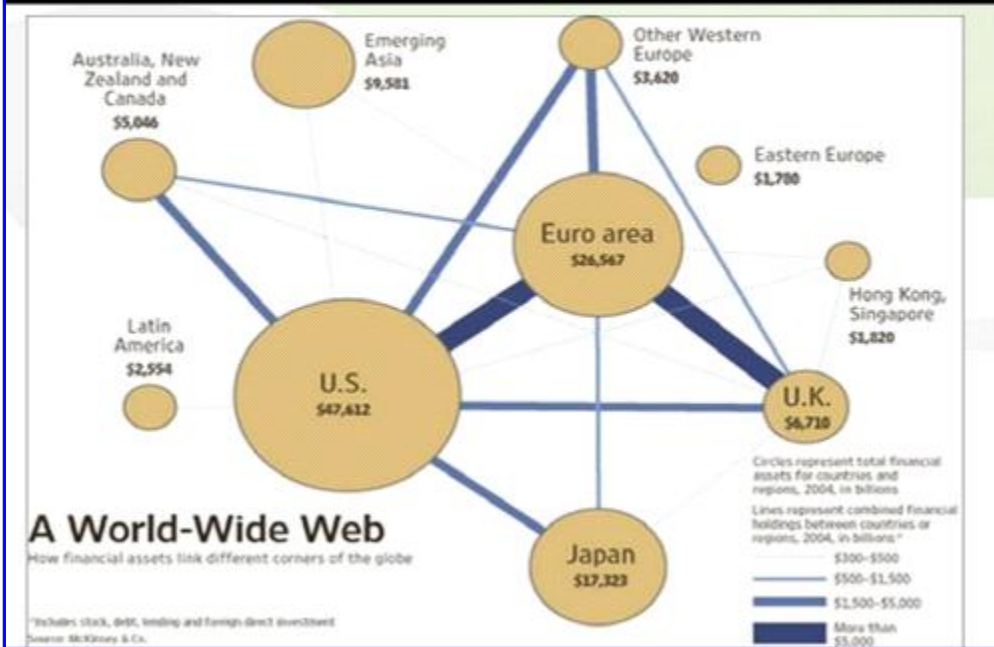
주목할만한 수치들 2

대한민국 부도 IMF 구제금액 5백 70억



한국 2009년 방위예산 223억 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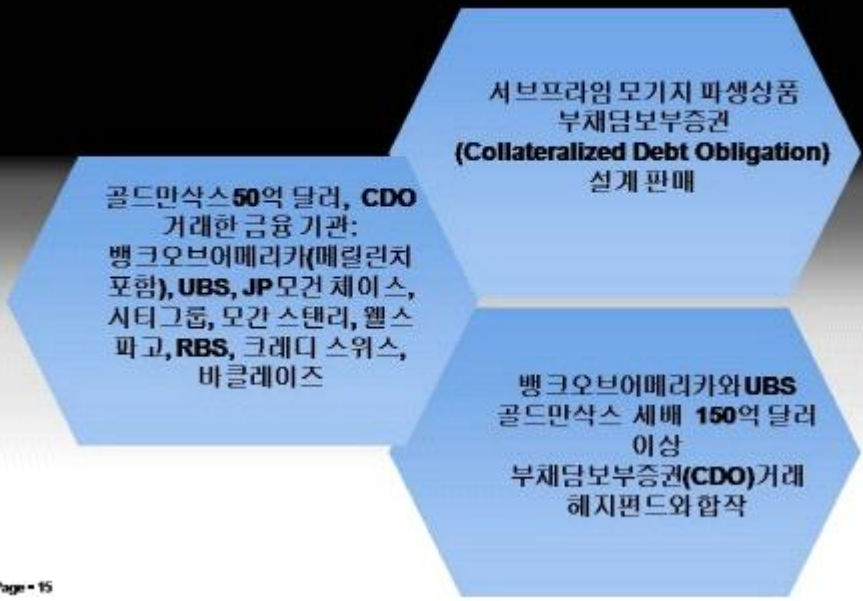
전 세계의 금융자산



금융위기 세계 금융시장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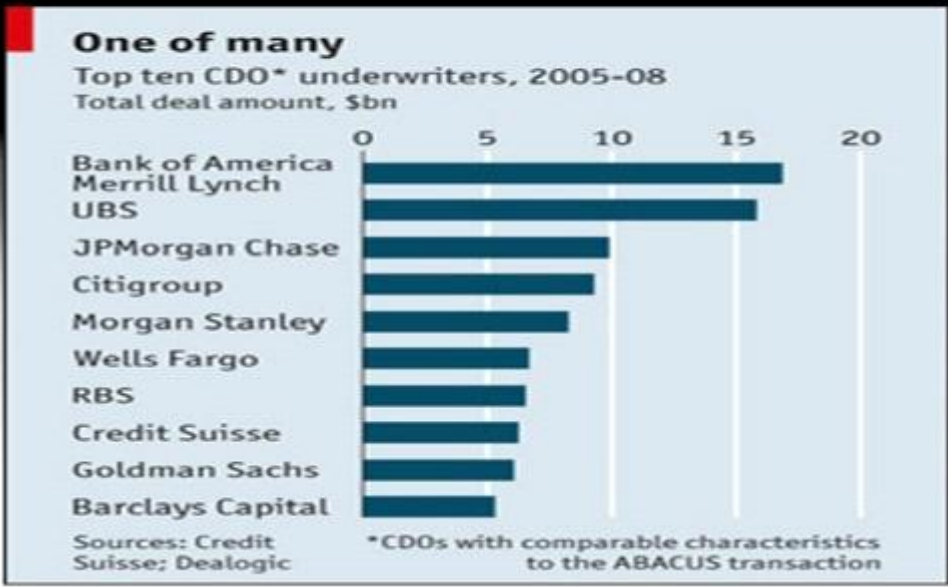


부채담보부증권(CDO)



Page - 15

CDO발행 10대 은행들



국채 신용 부도 스와프(CDS)

세계 대형 은행들의 국채
신용 부도 스와프
(Credit Default Swaps
: CDS)
총 400조 달러

2007년 현재 증권과
채권 포함 세계 금융자산
총액 140조 달러 3배
많은 전문학적 수치



Page - 17

미국 신용평가기관들



그리스 재정 위기
월스트리트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

골드만삭스·
그리스 정부의
회계장부를
유로존 가입에
맞도록 조작

S&P·그리스 부채를
파산으로 규정·미국 신용
평가기관의 중립성과
객관성 문제 금융위기 후
공론화된 상태

S&P, 피치
무디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전날
AAA로 평가

그리스의 재정적자 규모·
영국이나 미국 수준·
영국과 미국 AAA,
그리스 파산(default)
등급

Page - 18

중국 신용 평가 기관

미국 독점 신용평가기관의 서구 편향, 정치화 지적, 중국 1994년 국영 '다공 글로벌 신용평가 주식회사(Dagong Global Credit Rating Co. Ltd)' 설립

미국 신용평가사와 필적할 만한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
달바꿈 2010년 본격화



다공의 50개국 국가채무 평가표:
독일과 중국 같은 등급 AA+, 전망 '안정적(stable)'
미국, 영국, 프랑스 AA 등급, 전망 '부정적(negative)'

상해협력기구(SCO) -1

금융 위기 후 중국 최대 외환 보유국으로 등장, 러시아 증시 폭락 경험, 서구세계에 큰 목소리를 높일 기회를 잡은 중국과 서구 자본력에 러시아 경제의 무기력함을 인정한 러시아 실세들의 심기일전이 SCO내에서 더욱 결속 강화 배경

상해 협력기구(SCO) 소련의
붕괴 후인 1996년 정설



러시아•중국•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
탄이 정 회원국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려는 중국, 옛 소련의 영토를 되찾으려는 러시아,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체제 유지가 절실한 중앙아시아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 강력한 구심력 형성

상해협력기구(SCO) -2



- ▶ 러시아 과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정복실패에 대한 콤플렉스
- ▶ 구 소련 공화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접경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토가 승승장구 환영할 이유 없음
- ▶ 러시아는 **SCO**를 통해 나토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상황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추진

중국입장에서 미국의 포위정책(**Encirclement Policy**)의 일환으로 해석

러시아입장에서는 남진 차단용이라는 인식-**SCO**에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협력적 전략 관계



기축 통화로서 위안화 1

독일 정부 경제 지문의 요셉 포핑커 교수: 달러, 유로, 위안 3개 화폐 합친 3극 체제(tri-polar system) 국제 기축 통화 제안

고정환율 대신 3개 화폐의 가치·이자율 차이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 유로존이 미국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유로는 달러에 대해서 평가절하·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이 3 화폐 중에 자국 화폐를 고정시키고, 전체 시스템 IMF 모니터·이기적인 통화정책 차단 방안

환투기자들이 특정 화폐가 유리한 이자율을 지니더라도 화폐가치는 평가절하되기 때문에 케라 거래가 더 이상 투자가치를 갖지 않게 된다는 것

실득력 있는 이론· 중국이 자국 동화를 국제 감시 기관에 넘길 수 있는지가 관건



기축 통화로서 위안화 2

기축통화국 미국·삼극체제를 수락한다는 것 영향력 손실 의미/그럼에도 보잉기 교수는 미국조차 삼극체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주장:

현재 미국은 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달러는 외국 정부들이 자국 경제에 유리한 환율로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다. 미국 제조업이,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대가를 치른 부분이 바로 달러의 국제 환율이었다.

만일 달러가 국제 통화 제도 내에서 제대로 규제된다면, 미국은 현재 환율에 관한 한 부정부적 상황에서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잉기 교수 3개 화폐 공동 기축통화 안·유로화기 과거 독일 마르크의 다른 이름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

-달러의 무제한적 발행이 정점에 이르러 기축통화 위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해도 서구세계는 유로라는 대체 화폐가 존재

-향후 기축통화·유로와 위안 쌍두체제 가능성

보유 외환의 포트폴리오 전략

달러 하락-
유럽연합과 일본 같은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화폐도 동반 하락 가능성-유로가 달러에 대한 가장 안전한 대체 화폐라고는 하지만 달러하락으로부터 무용지대 이남

프랭클린 템플턴 하드 커런시 펀드(Franklin Templeton Hard Currency Fund)사-스웨덴 크루나와 폴란드 즐로티화가 무역흑자와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서 앞으로 강세를 보일 화폐도 주목-

스위스 프랑 이외에 오일과 천연자원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덕분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캐나다 화폐를 달러 대신하는 외환으로 추천

외환 포트폴리오 전략
국제 분쟁 발생시 달러가 강세면 유로화를 사고, 유로화가 강세인 경우는 홍콩 달러, 호주 달러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매입무엇보다도 중국이 보유 외환 중 미국 달러를 부동산과 현물을 사들이는 빠른 속도를 봤을 때, 한국도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것이 중요

환율전쟁 1

환투기 세력의 정세와 위력

환투기 세력의 대표주자 1992년 영국중앙은행을 상대로 환투기를 벌여 10억 달러의 단기 차익을 챙긴 조지 소로스(1995년에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만들어 일본 엔화를 공격해 추산되지 않는 수익 1998년 동남아시아를 뒤흔든 외환위기 배후

자본 동원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소로스가 동원하는 환투기 세력의 가공할 담합의 위력을 무시하고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들 환투기 세력과 역부족 정면 승부

환율전쟁 2

유럽 재정위기 앞서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 비밀회동 유로 공격하기로 했다는 보도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2010년 2월 소로스를 필두로 한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유로 폭락 및 그리스 파산에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해 파문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Soros Fund Management LLC), 골드만삭스 산하의 폴슨 앤 컴퍼니(Paulson & Co), SAC 캐피탈 어드바이저스(SAC Capital Advisors LP), 그린라이트 캐피탈(Greenlight Capital Re Ltd) 등 대형 헤지펀드 임원들 2월 8일 맨하탄의 타운하우스 레스토랑에서 비밀회동- 유로화에 대한 투기 논의

이 비밀회동은 연구 투자 자문회사인 모네스 크레스피(Monness Crespi)와 하트 앤 컴퍼니(Hardt & Co)가 추천-비밀회동의 23개 의제 중에 하나가 유로화에 대한 배팅-SAC 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포트폴리오 담당이사가 이 배팅을 부족이며 참여를 독려 회동 후 연구보고서가 모네스 크레스피를 통해서 수백 명의 헤지펀드 고객들에게 전달- 유로가 달러와 같은 1:1환율이 될 것이라는 전망

환율전쟁3

환투기 세력들의 목시적인 "믿음-"
"정부는 결코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

환율 전쟁의 특징은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고 달러약세 추세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주 엔고, 금값 최고치 행진등)과 위험자산 선호현상(신종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변갈아 나타났던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이유는 바로 환 투기세력들은 외환뿐만 아니라 금과 에너지 매점매석을 통해 자금력을 배가시켰다는 증거

원화가 환투기 세력에게 능력당하면 한국 정부는 수조 원, 수십 조원씩 채권을 발행해 만든 실탄으로 환율 방어- 우리 정부의 방어력 수준은 환투기 세력을 당해 내기엔 턱없이 부족

알려진 바로는 2008년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치른 대기(누적 손실)는 30조원

달러의 종말-2015년

시발점 중국이 미국 달러를 더 이상 기축동화로 인정하지 않고 SCO내에서 위안화를 기축동화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15년 전후



미국이 '내비 파워'를 상실하기 시작함에 따라 기존의 G20도 유명무실-대혼란의 기간은 2022년까지 이어질 것

달러화의 종말

2022년에 이르면 미국 달러가 화폐로서 종말을 고할 것-

2015년에서 2022년까지 7년간 세계 경제는 1930년의 대공황때 보다 더 큰 혼란

**ECONOMIC WARFARE
IN A NEW BIPOLAR SYSTEM**

한국경제연구원

이 7년간 국제 결제 수단은 유로화와 위안화뿐만 아니라 현물로 대신하는 물물교환의 양상도 함께-

금은 위시한 귀금속과 철과 같은 일반 광물, 오일과 식량이 결제 수단

맺음말

과연 규제의 주체로서 정부가 제 역할을 찾고, 시장은 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한 계기는 경제 공황이나 전쟁 같은 거대한 소용돌이 없이 마련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 듣는다.

조 명 진

Page • 38

한국경제연구원

NOTES

신 양극체제와 한국의 전략 선택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5차 전문가포럼

NOTES

신 양극체제와 한국의 전략 선택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5차 전문가포럼